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0월 2014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찾은 시민들이 인도 작가 프리날리니 무케르지의 작품 '수목생성'을 관람하고 있다. 지난 5일 개막한 광주 비엔날레에는 모두 1만200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예년보다 다양한 작품 만나니 좋다”

2014광주비엔날레 풍경

개막 후 첫 주말·추석 접쳐
10일까지 1만2000명 방문
미성숙한 관람문화 '욕에 티'
일부 작품 접근 금지줄 제작

“난해한 작품들도 있었지만 색다른 작품들이 연속하게 다가오는 느낌이어서 즐거웠습니다.”

2014광주비엔날레(9월5일~11월9일) 개막 이후 첫 주말과 추석 연휴를 맞아 10일까지 모두 1만2000여 명의 시민들이 전시장을 찾은 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족 단위 관람객들은 38개국 작가들의 작품 413점을 천천히 둘러본 뒤, 전시장 야외 사이트인 팔각정과 광주시립민속박물관 등을 관람하고 산책하면서 연휴를 보냈다. 지난 7~9일에는 한복을 입고 전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무료로 전시를 관람하기도 했다.

광주비엔날레재단 관계자는 “개막과 동시에 추석 연휴가 이어지면서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대체로 각국의 현대미술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10일 아내와 함께 전시장을 찾은 천경중(65)씨는 “예년에 비해 다양한 작품들이 많아 보는 내내 즐거웠다”며 “특히 우리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작품들을 모아 놓은 중국 작가의 ‘쓸모없는’을 보면서 많

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비엔날레를 보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온 홍익대 시각디자인학과 최수훈(27)씨는 “집이라는 소재를 불태운다는 것 자체가 인상깊었는데, 불타고 나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공간을 작품들이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개막 이후 시민들에게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은 1전시실에 있는 아르헨티나 작가 에두아르도 바수알도의 ‘섬’이다. 2~3명씩 짝을 지어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작품 앞에는 20~30명씩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했다.

이 작품은 불에 타버린 집의 외형을 만든 뒤 작가가 실제로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화재현장에서 가져온 잔해들을 전시한 작품이다. 관람객들은 겉모습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내부로 들어가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된다.

4전시실에 있는 로만 온다의 시민 참여형 작품도 관람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하얀 벽면으로 된 전시장 내부로 들어서면 도슨트가 다가와 “실례지만

혹시 지금 시각이 어떻게 되나요?”라고 묻고, 시민들이 답하게 되면 하얀 벽면에 그 사람의 이름의 이름과 방문 시간이 방명록처럼 기록되게 된다.

이 밖에도 카르슈텐 뢰러의 ‘일곱 개의 미닫이 문’과 우르스 피셔의 ‘38 E. 1st ST’, 1전시실의 에드워드 킨홀츠와 낸시 레딘 킨홀츠의 ‘오지만디아스 파레이드’ 등도 시민들의 발걸음이 가장 오래 머문 작품이다.

시민들의 성숙하지 못한 관람 문화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일부 시민들은 작품을 만지거나 작품 사이로 뛰어다니면서 아찔한 광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도슨트들도 “만지지 마세요. 뛰지 마세요”를 외치기 바빴다. 급기야는 광주비엔날레 측이 지난 9일 주요 작품에 접근 금지줄을 만들었고, 이 때문에 일부 작품은 제대로 된 관람도 힘들고, 시민들의 동선도 극히 제한적으로 줄어들었다.

또 개막 첫새 만인 이날 4전시실에 있는 김성환 작가의 영상작품이 고장나 작동을 멈춘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도슨트와 함께 하면 재미 두배 스마트폰 전시해설도

현대미술이 어렵다면 도슨트와 함께 전시장을 돌아보자.

전시 기간 매일 모두 11차례 도슨트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오후 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진행된다.

소요 시간은 1시간10분에서 1시간30분정도로, 참가비는 무료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전시관 입

구에 있는 도슨트 인포메이션 앞으로 선착순으로 모이면 된다. 이 밖에도 스마트폰을 활용해 전시해설을 들을 수 있다. 광주비엔날레 모바일 홈페이지(m.gwangjubiennale.org)에 접속해 전시별 음성 파일을 다운받아 들으면 된다.

또 11일부터는 전시장 입구에 QR코드가 설치될 예정이어서 더욱 손쉽게 전시 해설을 들을 수 있다. 문의 062-608-4393. /김경민기자 kki@

환우·가족들 힘내세요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회, 내일 조선대 병원서

매달 한 차례씩 모여 아름다운 가곡을 함께 불러온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회(회장 황선옥)는 해마다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해 조선대 병원에서 행사를 갖는다. 12일 오후 7시 조선대 병원 로비.

이번 무대는 환자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가곡과 동요로 레퍼토리를 짰다. ‘나뭇잎새’, ‘노을’, ‘그 집 앞’, ‘금강에 살으리겠다’, ‘얼굴’, ‘보리밭’ 등을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갖는다.

공연은 우리가곡부르기 회원들로 구성된 ‘우가사 중창단’이 ‘그리운 마음’과 ‘나그네 사랑하리라’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한다. 테너 박현 소프라노 김희숙씨가 오페

라 ‘춘향전’ 중에서 ‘그리워 그리워’를 부르며 서구어린이 합창단이 찬조 출연해 ‘비비디바비디부’, ‘별’을 들려준다. 다함께 배우는 노래는 ‘나 그대 사랑하리라’다.

그밖에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강명진이 ‘ViVa! 비바?’를 연주하며 초청 음악인으로 바리톤 김제선과 소프라노 윤은주씨가 출연, 해바라기의 ‘행복을 주는 사람’, 오페라 ‘잔니 스키키’ 중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선사한다. http://cafe.daum.net/gikrsong 문의 010-2694-4592, 062-575-599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바리톤 김제선

정지은 귀국 피아노 독주회

내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정지은(사진) 귀국 피아노 독주회가 12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전남대 음악학과와 독일 국립 뉘른베르크 음악대학 석사과정을 졸업한 정씨는 뉘른베르크, 바이에른 등에서 수차례 초청 독주회와 실내악 연주회를 가졌으며 귀국후 2015 광주국제유니버시아드 성공 개최 빛고을음악회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1월과 12월에는 사랑과 나눔 앙상블이 주관하는 연주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연주 레퍼토리는 베토벤의 ‘소나타 6번 F장조’, 스크랴빈의 ‘소나타 판타지’, 슈베르트의 ‘소나타 D단조 20번’이다. 전석 초대. 문의 010-4301-1929. /김미은기자 mekim@



다문화 전통음악 만난다

광주평화방송 무료공연…13일 광주문화회관

광주평화방송은 오는 13일 오후 3시 광주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다문화 전통음악과 공연이 어우러지는 ‘2014 광주·전남 다문화 순회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광주지역 종교인평화회의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광주평화방송이 주관한다.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몽

골,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콩고, 가나, 나이지리아 등 11개국 12명의 출연자들은 국립극장 문화동반자사업을 통해 갈고 닦은 기량을 국가별 전통 공연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또 초대 가수로 바다와 함께 국악양상반 시나위가 특별출연한다. 공연은 무료다. 문의 062-231-7701. /김경민기자 kki@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기쁜 마음 가득담아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맞이하세요!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 게임동 홀플러스 건너편 | 예약문의 (062)525-2111 | www.geumsoojang.com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트라이슈머 덮코팅 시공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달린트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